영재교육연구 제 23 권 제 4 호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13. Vol 23. No 4, pp. 615~632
http://dx.doi.org/10.9722/JGTE.2013.23.4.615

창의적 인물의 특성과 직업군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지식 비교

최 인 수 이 건 희 표 정 민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국, 일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적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인물의 특성에 대한 설문을 한국, 중국, 일본의 전 연령대 일반인들(한국: 328명, 중국: 388명, 일본: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전 연령대에서 독창성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10대는 모험성, 20대·30대·50대 이상에서는 지적능력, 그리고 40대에서는 독창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한국과 일본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응답된 창의적 인물을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연령대별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치가가, 일본은 전 연령대에서 예술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과학자와 예술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의적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의 차이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동양의 창의성에 대한 비교문화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과 아울러, 창의성 연구에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창의적 인물 특성, 직업군, 암묵적 지식, 비교문화연구

I. 서 론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부 리더들은 현대 사회는 그 사회가 창의성을 얼마만큼 육성하고 가치있게 여기는지에 따라 흥망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Moran, 2010). 또한 현대의 많은 학자들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창의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신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Gardner, 2006; Sternberg, 2005; Csikszentmihalyi, 1996: 박춘성, 201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교신저자: 이건희(37588@hanmail.net)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B00567).

에서 발간한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권 기업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인재상의 특성으로 ‘전문성’, ‘창의성’, ‘도전정신’, ‘도덕성’, ‘주인의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의 특성으로도 창의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3). ‘도전정신’이 ‘창의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으나, 지금까지 창의적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도전정신’이 창의적 특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는 바, 창의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특성이 아님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창의성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개인의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가?’,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최인수, 2011).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창의성이라는 개념의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창의성의 정의는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Hennessey & Amabile, 1988; Perkins, 1988; Jackson & Messick, 1967; Mckinnon, 1962; Barron, 1988; Ochse, 1990: 최인수, 1998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 정의에 의하면 새로움과 적절함에 대한 기준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 또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특정 사회나 문화 내에서는 새롭거나 적절하다고 인식되는 대상이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견 문화보편적 정의라고 생각되는 이 정의는 결국 문화특수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창의성 연구에서 문화의 영향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와 관련지어 창의성의 특성을 언급한 학자들 중 Czikszentmihalyi(1996)는 ‘창의성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까지 언급하였다. 그는 기존의 창의성 연구들이 창의성을 개인이나 산출물 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창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ubart(2010)도 창의성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영향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그는 문화를 창의성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지닌 맥락으로서 제시하면서, 창의성을 맥락적으로 뿌리박힌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러한 맥락은 특정 환경이 지닌 물리적, 사회적 특성들로 구분될 수 있는데, 특히 사회적 환경은 가족, 학교, 조직으로부터 지역사회, 지역적 환경과 국가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학자들의 접근에 동의하여 최근에는 창의성연구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맥락을 고려하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창의성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 또한 인식되고 있으며,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Chan & Chan, 1999; Lim & Plucker, 2001; Niu & Sternberg, 2002; Rudowicz & Hui, 1997; Sternberg, 1985; Yue & Rudowicz, 2002).

Sternberg(1985)는 이러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특정 개념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방법의 하나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가지의 이론, 즉 명시적 이론과 암묵적 이론에

의해서 발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명시적 이론(explicit theories)이란 심리적 기능을 측정하는 과제 수행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에 근거하여 심리학자 또는 다른 학자들이 규정하는 구성개념을 일컫는다. 이에 비해,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이란 개념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심리학적 구성개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Sternberg, 1985).

Sternberg(1985)는 명시적 이론을 통해 구성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할 때, 명시적 이론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데 있어 암묵적 이론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암묵적 이론에 대한 연구는 명시적 이론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암묵적 이론 또는 암묵적 지식(implicit knowledge)을 발견해내는 것은 심리학적 구성개념에 대해 개별 문화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공통적 관점(common-cultural views)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즉 암묵적 지식은 동일 문화내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관점을 파악해내고 그것을 타문화권의 관점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암묵적 지식에 대한 연구는 특정 구성개념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밝히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의성 연구에 있어서는 그 개념상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서양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창의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으로서 자신을 창의적으로 인식함, 독립적임, 위험을 감수함, 열정적인 에너지, 열심히 함, 자발적, 모험적, 철저한, 많은 호기심, 폭넓은 관심, 뛰어난 유머감각, 천진난만하고 놀기 좋아함, 예술적인 흥미, 심미적인 흥미, 이상주의적, 반성적,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함, 새로움, 복잡성과 신비로움 등을 제시하였다(Barron, 1969; Davis, 1986; Mackinnon, 1976; Torrance, 1962, 1979, 1981; 하주현, 성은현, 2009에서 재인용).

최근 들어서 이러한 서양 중심의 연구 흐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서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고 있는 바, Lubart(2010)는 미국, 영국, 브라질, 인도, 중국, 한국 등 동, 서양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창의적 인물의 핵심 특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 연구들을 종합하여 몇 가지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 중 인지적 기술(연합능력, 질문, 상상력, 유연한 사고), 성격특성(독립성, 자신감, 주장성), 동기적 특성(높은 에너지, 열정)은 창의적 인물에 대한 문화 공통적인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결과도 있었으니, 예를 들어 '유머감각', '심미적', '예술적 성향'들은 북미권에서는 창의적인 인물의 특성으로 인식되었으나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교문화연구에 포함되는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Yue(2011)는 중국과 독일 대학생이 생각하는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대학생들은 사회에 공헌적인 정치가, 과학자를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독일 대학생들은 심미적 특성을 가진 예술가를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letz, Peng, Li(2011)의 연구에서는 일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인물은 사회적 상호작용, 협동, 외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인들은

사고 및 지적능력 등을 창의적 사람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아시아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비교하는 연구도 있다. Seng, Keung, Cheung(2008) 등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살펴본 결과 홍콩의 예비교사들이 싱가포르의 예비교사들에 비해 출생순위가 첫째인 사람이 더욱 창의적이며, 창의적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나이가 젊을수록 더욱 창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싱가포르 예비교사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지능 또한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Yue와 Rudowicz(2002)는 중국, 홍콩, 대만의 대학생들이 가장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정치가가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홍콩과 중국(광저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과 외국의 창의적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비교한 Yue(2003)의 연구에서는 두 나라 대학생들 모두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경우에 창의적 인물로 인식하는 편향(bias)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최근의 아시아 국가들 간의 창의적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 연구들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중국문화권 국가들 간의 비교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대상 또한 교사 및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서양 국가들과 창의성에 대한 비교문화연구가 종종 이루어져 왔지만(Rudowicz, 2003; Rudowicz & Hui, 1997; Wonder & Blake, 1992; 성은현 외, 2007), 세 국가를 동시에 함께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 문화권으로서,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의 전통을 토대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분류되어 왔다. 또한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에 비교적 동질한 문화적 특성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Markus & Kitayama, 1991; 김병호, 1996: 최인수, 임미정, 표정민, 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Hofstede(2001)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듯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집단주의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체면의 유지와 전통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반면 중국은 가장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이며, 불확실성을 선호하지 않는 국가로서 많은 규정과 위험추구행동을 회피한다고 하였으며, 일본은 세 국가에서 가장 권력의 격차가 낮은 나라이며,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공격성이 높으며, 독창성, 위험추구행동과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나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서양학자들에게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는 듯이 보이는 아시아의 세 나라의 창의성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탐색해 보는 것은 창의성의 개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중국문화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동양의 창의성 연구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Sternberg(1985)는 암묵적 지식 연구에서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즉, 특정 개념에 대한 암묵적 지식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특정 연령대에 국한 되었던 연구 대상을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의 전 연령대로 확장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Lubart(1999)가 창의성의 개념에 미치는 환경 및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세대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맥락과도 유사하다. 최인수(2006, 2011)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이 같은 문화권에서도 세대별로 다르다면 창의성에 미치는 사회문화적요인의 영향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세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다양한 연령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인물의 특성과 직업군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중국·일본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창의적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1-1. 세 국가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인물의 특성은 국가,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2. 세 국가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인물의 직업군은 국가,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에 거주하는 10대에서 50대 이상까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된 자료들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연구자가 수령 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각 국가별, 그리고 연령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국가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각 연령대의 인원을 최소 60명 이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1차 조사로 부족한 연구대상은 2차 조사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총인원은 1,198명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88명을 제외한 1,11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에 대한 국가 및 연령별 구성 단위: 명

국가	성별	연령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한국	남	27	30	26	21	27	131
	여	59	30	31	48	29	197
중국	남	18	23	7	26	26	100
	여	77	119	36	28	28	288
일본	남	22	56	42	27	37	184
	여	38	60	26	39	47	210
계		241	318	168	189	194	1,110

2. 측정 도구

암묵적 지식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김민희, 2010). 첫 번째는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개방형으로 작성하는 것, 두 번째는 다양한 형용사들이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인지를 평정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창의적인 사람을 지목해보라고 하는 것, 마지막은 특별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평정하게 하는 방법이다(Hollday & Chandler, 1986; Sternberg, 1985).

이러한 방법들 중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개방형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창의적인 사람을 지목해보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설문지에 포함된 개방형 질문은 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문항은 각국에서 창의적인 사람을 떠올린 후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국가)에서 창의적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특성을 모두 적어보세요.”

두 번째 문항은 각 국가에서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3순위까지 작성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국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인지 가장 창의적인 순서대로 그 이름을 적어 보세요.”

3. 연구 절차 및 방법

한국에서 암묵적 지식 설문은 1차적으로 2010년 9월 15일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전 연령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S대, S여대, B대의 대학생들에게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적으로 수거된 자료들을 확인하여 연령별로 부족한 자료들은 추가적으로 2차 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2차 조사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개별적인 인맥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0년 11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총 수거된 설문지는 401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2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국인의 암묵적 지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한국어용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2010년 9월 20일부터 말까지 중국어 전문 번역가를 통하여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이후 중국어 전문가인 중문학과 교수에게 내용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수정된 중국어용 설문지는 전문 번역가를 통하여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설문지를 구성한 연구원들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번역 및 역번역 작업을 통하여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였다(Van de Vijver & Leung, 1997). 중국에서의 암묵적 지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2010년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북경과 길림성에 위치한 B대학과 D대학의 협조를 받아 각 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부족한 연령별 부수에 대한 설문은 중국의 여러 지방(상해, 복주, 훈춘, 연길, 연변, 장춘 등)에 거주하는 연구

원의 지인들을 통하여 각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수거된 설문지는 566부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한 후, 총 388명의 응답을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본인의 암묵적 지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한국 설문지를 번역하여 제작하였다. 2010년 12월 말까지 번역 및 역번역 작업을 통하여 일본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본의 여러 지역(도쿄, 교토, 나고야, 삿포로, 시즈오카, 오사카, 요코하마, 치바, 홋카이도 등)에서 2011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일본 H대학의 교수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전체 413부를 수거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한 39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응답된 창의적 인물의 특성과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에 대한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창의적 인물의 특성

세 국가에서 응답된 창의적 인물에 관한 모든 특성들을 국가별로 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창의성을 전공한 박사 3인과 박사과정생 2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먼저, 전체 응답 중 빈도가 3회 이상 나타난 특성들에 대해 박사급 연구자 3인 중, 2인 이상이 합의했을 때에만 하나의 특성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은 <표 2>와 같이 총 38개의 특성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번역된 응답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범주화 작업은 중국문화에 정통한 중국 국적의 중문과 교수 1인과 창의성 전공의 중국인 1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일본 국적의 일문과 교수 및 번역가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표 2> 창의적 인물의 특성 범주

번호	특성범주명	내 용
1	개방성	새로운 자극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2	결단/추진력	목표를 향한 추진력과 행동력이 강하다.
3	겸손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소박하고 겸손하다.
4	공감/설득력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통하여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5	공헌적	자신이 종사하는 영역의 수준을 증진시키고 확장시킨다.
6	근면	계속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끊임없이 노력한다.
7	긍정적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항상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8	내적동기	결과로서 얻는 외적 보상보다는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다.
9	독립성	유행이나 경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
10	독창성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11	리더십	그룹이나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있다.
12	매력적인	아름답거나 타인을 기분좋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13	모험성	도전적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4	민감성/관찰력	작은 변화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며, 여러 자극들에 쉽게 반응한다.
15	밸런스/조화	상반되어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감각이 있으면서 이상적인 사고를 한다.
16	부정적 특성	창의적인 특성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모두 포함한다.
17	사회성	타인과 잘 어울리며,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을 나타낸다.
18	상상적	상상을 많이 한다.
19	순수한	순진하고 순수하며, 아이와 같은 꾸밈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20	안정적인/고요한	침착하며, 냉정을 잃지 않는다. 주변의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1	엄격한	꼼꼼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
22	열정적인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23	예술적인	예술적 감각이 있으며,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술적 감각, 심미성, 미적 표현 능력 등을 포함한다.
24	유머	재미있고, 유머감각이 있다.
25	유창성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다.
26	이타적인	마음씨가 따뜻하고, 친절하며, 타인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27	인내/끈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28	자기관리	스스로 자신의 생활과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다.
29	자신감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30	재능	자신의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31	정직	정직하고 항상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
32	지식/기술기반	자신의 영역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33	지적능력	영리하고 현명하며, 논리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
34	지지적 환경	자신의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다.
35	책임감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을 삶의 목표로 생각한다.
36	쾌활함	성격이 밝고 쾌활하다.
37	통찰력	예민한 관찰력과 추론능력, 그리고 안목과 지각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
38	호기심/다양한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

창의적 인물 대한 분석은 각국에서 응답된 창의적 인물들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직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세 국가에서 지목된 창의적 인물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국가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naver.com, google.com, baidu.com 등)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Kennedy & Hauksson, 2012).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인물이 여러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주요활동 또는 성취 영역에 근거하여 가장 잘 알려진 직업으로 분류하였으며(Yue & Rudowicz, 2002), 박사급 연구자 3인 중, 2인 이상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이러한 직업 범주화 작업은 Yue, Bender, Cheung (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분류절차와 최인수와 윤지윤(2013)이 사용한 방식을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조사한 창의적 인물의 직업들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8)에서 제시한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ISCO-08)를 참조하여 1차 직업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분류작업을 통하여 도출된 1차 직업군의 수는 모두 27개였다. 직업군에 대한 용이한 비

교 분석을 위해서 Yue 외(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8개의 직업군(politician, scientists/ inventors, literature, philosophers/educators, artists, generals/military strategists, business person, tri-stars)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8개의 직업군(과학자, 예술가, 엔터테이너, 정치가, 기업가, 군인, 운동선수, 학자)을 선정하는 축소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종 직업군과 Yue 외(2011)의 연구에서 분류한 직업군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Yue 외(2011)의 연구에서는 문학가(literature)와 철학자/교육자(philosophers/educators)를 구분하였지만,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두 직업군의 빈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직업군을 묶어서 학자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Yue 외(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tri-star(pop-stars, movie stars, sport stars)를 구분하여 가수(pop-stars)와 영화배우(movie stars)는 엔터테이너, 스포츠 스타(sport stars)는 운동선수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각각의 직업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광범위하며, 또한 국제직업분류(ISCO-08)에 따르면 가수와 배우는 하나의 범주(265: creative and performing artists)로 분류되지만 운동선수는 다른 범주(342: sports and fitness workers)로 구분되고 있기에 두 직업군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도출된 최종 직업군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

직업군		직 업
1	과학자	과학자, 발명가
2	예술가	디자이너, 화가, 감독, 프로듀서, 작가, 피아니스트, 음악가
3	엔터테이너	배우, 코미디언, 가수
4	정치가	대통령, 총리, 사무라이, UN 사무총장, 장관, 왕, 여왕
5	기업가	기업가, CEO
6	군인	군인, 장교
7	운동선수	운동선수
8	학자	학자, 철학자, 교육자
9	기타	

이와 같은 범주화 과정을 통해 분류된 38개의 창의적 인물 특성에 대한 국가, 연령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9개의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 빈도가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연령에 따른 직업군의 빈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WIN v.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대한 국가·연령별 비교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대해 각 국가별로 연령에 따라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연령대에서 상위 5위까지 나타난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표 4>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전 연령대에서 독창성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10대

<표 4> 국가별 창의적 인물 특성에 대한 연령별 비교

	한국		중국		일본	
10대	독창성	51(68.9)	모험성	50(58.1)	독창성	26(46.4)
	모험성	30(40.5)	인내/끈기	36(41.9)	공감/설득력 재능	12(21.4)
	개방성 독립성	19(25.7)	지적능력	34(39.5)		
			독창성	33(38.4)	유창성	11(19.6)
	재 능	15(20.3)	호기심/다양한 관심	31(36.0)	지적능력	9(16.1)
20대	독창성	45(81.8)	지적능력	60(42.3)	독창성	54(49.5)
	모험성	21(38.2)	모험성	57(40.1)	독립성 공감/설득력	24(22.0)
	개방성	19(34.5)	독창성	49(34.5)		
	결단/추진력 독립성	15(27.3)	개방성	45(31.7)	개방성	21(19.3)
			결단/추진력	42(29.6)	유 머	20(18.3)
30대	독창성	33(67.3)	지적능력	20(50.0)	독창성	27(43.5)
	모험성	19(38.8)	독창성	16(40.0)	결단/추진력	24(38.7)
	결단/추진력	16(32.7)	모험성	10(25.0)	개방성	21(33.9)
	인내/끈기	12(24.5)	개방성		모험성	14(22.6)
	근면	11(22.4)	통찰력 독립성	9(22.5)	독립성 지식/기술기반 유창성 호기심/다양한관심	11(17.7)
40대	독창성	45(77.6)	독창성	13(26.5)	독창성	26(44.8)
	모험성	25(43.1)	지적능력	10(20.4)	결단/추진력 모험성	17(29.3)
	결단/추진력	24(41.4)	모험성			
	근면	18(31.0)	호기심/다양한 관심		독립성	15(25.9)
	통찰력 재능	15(25.9)	인내/끈기 통찰력 자신감	9(18.4)	공감/설득력	14(24.1)
50대 이상	독창성	25(54.3)	지적능력	17(41.5)	독창성	32(40.0)
	통찰력	18(39.1)	독창성	11(26.8)	결단/추진력	26(32.5)
	모험성 결단/추진력	14(30.4)	자신감 재능		개방성	24(30.0)
					통찰력	21(26.3)
	공헌적	9(19.6)	통찰력	7(17.1)	독립성 공헌적 인내/끈기	16(20.0)

*단위는 빈도 (%) (각 국가의 연령대에서 해당 특성이 차지하는 비율) ** 같은 빈도는 묶음으로 제시.

는 모험성(58.1%), 20대(42.3%)·30대(50.0%)·50대 이상(41.5%)에서는 지적능력, 그리고 40대는 독창성(26.5%)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한국과 일본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독창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범주화된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 빈도가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검증을 실시한 결과, 국가에 따라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에 대한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 N=2,549)= 642.48, p<.05$).

<표 5>에서와 같이 국가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직업군으로 한국은 예술가(23.8%), 중국은 정치가(39.4%), 일본은 예술가(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1위(예술가, 23.8%)와 2위(과학자, 22.4%)간의 차이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에 대한 국가별 빈도분석 단위: 빈도(%)

직업군	한국		중국		일본	
예술가	1	203(23.8)	5	41(5.3)	1	341(37.1)
과학자	2	191(22.4)	2	203(26.2)	8	50(5.4)
정치가	3	143(16.7)	1	306(39.4)	4	108(11.8)
기업가	4	100(11.7)	3	108(13.9)	2	126(13.7)
엔터테이너	5	99(11.6)	6	23(3.0)	3	117(12.7)
군인	6	45(5.3)	9	4(0.5)	9	8(0.9)
기타	7	33(3.9)	4	61(7.9)	6	56(6.1)
운동선수	8	24(2.8)	8	10(1.3)	5	62(6.7)
학자	9	16(1.9)	7	20(2.6)	7	51(5.5)
총계		854(100)		776(100)		919(100)

3.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에 대한 연령별 비교

<표 6>은 창의적 인물에 대한 직업군 빈도를 각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 각각 정치가와 예술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예술가와 과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기업가와 정치가가 동일한 비율(26.0%)로 나타났다.

<표 7>은 각 국가의 연령대내에서 1, 2, 3순위로 응답된 전체 창의적 인물 중 1순위로 응답된 인물의 직업군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직업군만을 분석한 결과이다. 즉, 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 분석이다. 분석결과 중국과 일본의 경우 모든 세대에 걸쳐 각각 정치가와 예술가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과학자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과 일본의 경우 순위의 가중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 순위의 가중치를 고려하였을 경우 과학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표 6>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에 대한 연령별 빈도 분석 단위: 빈도(%)

	한국		중국		일본	
10대	예술가	73(33.2)	정치가	91(34.7)	예술가	48(37.5)
20대	과학자	35(23.6)	정치가	123(32.7)	예술가	125(43.6)
30대	예술가	39(26.9)	정치가	31(54.4)	예술가	56(35.7)
40대	과학자	43(23.0)	정치가	41(74.5)	예술가	54(33.8)
50대 이상	기업가/정치가	40(26.0)	정치가	20(74.1)	예술가	58(30.9)

* 빈도(%)는 각 국가의 연령대에서 해당 직업군이 차지하는 부분임

<표 7> 연령별 1순위 창의적인물의 직업군 분석 (최고빈도의 직업군 대상) 단위: 빈도(%)

	한국		중국		일본	
10대	과학자	27(33.3)	정치가	43(45.3)	예술가	18(36.0)
20대	과학자	16(30.2)	정치가	59(41.5)	예술가	46(43.4)
30대	과학자/예술가	14(25.9)	정치가	17(58.6)	예술가	22(36.1)
40대	과학자	22(33.3)	정치가	20(76.9)	예술가	18(29.0)
50대 이상	정치가	19(35.8)	정치가	14(82.4)	예술가	20(26.0)

<표 8>은 1순위로 지목된 창의적 인물들의 모든 직업군에 대한 빈도의 순위를 연령대별로 5위까지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한국은 모든 세대에 걸쳐 1, 2위 간의 차이가 3~10%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세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증가하여 50대 이상에서는 80%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젊은 세대일수록 1, 2위 간의 차이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앞서 제시된 <표 7>의 결과와 같이 각 국가에서 연령대별 최고빈도를 나타내는 직업군은 중국은 정치가, 일본은 예술가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한국은 10대에서는 과학자(33.3%), 20대 과학자(30.2%), 30대 과학자, 예술가(25.9%), 40대 과학자(33.3%), 50대 이상은 정치가(35.8%)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각 세대에서 동일한 직업군으로 통일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치가의 비율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8> 연령별 1순위 창의적인물의 직업군 분석 (5위까지의 직업군 대상) 단위: 빈도(%)

	한국		중국		일본	
10대	과학자	27(33.3)	정치가	43(45.3)	예술가	18(36.0)
	예술가	25(30.9)	과학자	22(23.2)	운동선수/기타	8(16.0)
	엔터테이너	10(12.3)	기업가/기타	9(9.5)	정치가	7(14.0)
	정치가	7(8.6)	예술가/학자	5(5.3)	엔터테이너	6(12.0)
	기업가	6(7.4)	군인/운동선수	1(1.1)	과학자	3(6.0)
	총계	81(100)	총계	95(100)	총계	50(100)

	한국		중국		일본	
20대	과학자	16(30.2)	정치가	59(41.5)	예술가	46(43.4)
	정치가	10(18.9)	과학자	38(26.8)	엔터테이너	23(21.7)
	예술가	9(17.0)	기업가	28(19.7)	기업가	19(9.4)
	엔터테이너	7(13.2)	기타	6(4.2)	운동선수	9(8.5)
	기업가	5(9.4)	학자	4(2.8)	정치가	7(6.6)
	총계	53(100)	총계	142(100)	총계	106(100)
30대	과학자 예술가	14(25.9)	정치가	17(58.6)	예술가	22(36.1)
	정치가	12(22.2)	기업가	7(24.1)	정치가	10(16.4)
	기업가	5(9.3)	예술가	3(10.3)	기업가	7(11.5)
	엔터테이너	3(5.6)	과학자 엔터테이너	1(3.4)	학자	6(9,8)
	군인/기타	2(2.5)	-	-	과학자	5(8.2)
	총계	54(100)	총계	29(100)	총계	61(100)
40대	과학자	22(33.3)	정치가	20(76.9)	예술가	18(29.0)
	정치가	19(28.8)	기업가/기타	3(11.5)	기업가	17(27.4)
	예술가	10(15.2)	-	-	엔터테이너	9(14.5)
	기업가	6(9.1)	-	-	정치가	7(11.3)
	기타	4(6.1)	-	-	운동선수 학자/기타	3(4.8)
	총계	66(100)	총계	26(100)	총계	62(100)
50대 이상	정치가	19(35.8)	정치가	14(82.4)	예술가	20(26.0)
	기업가	14(26.4)	과학자 기업가/기타	1(5.9)	기업가	18(23.4)
	과학자	13(24.5)	-	-	정치가	14(18.2)
	예술가	4(7.5)	-	-	학자	10(13.0)
	군인/학자 운동선수	1(1.9)	-	-	기타	6(7.8)
	총계	53(100)	총계	17(100)	총계	77(100)

* 국가 내 세대별로 1순위로 언급된 인물의 직업군에 대한 5위까지의 빈도 분석임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인물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지식을 국가와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설문을 한국, 중국, 일본의 전 연령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가 내에서 연령대별로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독창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10대는 모험성(58.1%), 20대(42.3%)·30대(50.0%)·50대 이상(41.5%)에서는 지적능력, 그리고 40대에서는 독창성(2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에 비해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창의적인 인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세대 간에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체적인 사회맥락에서 창의적인 인물의 특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암묵적 지식을 조사한 Lim과 Plucker(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독립적이지만 이상하고 외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Lim과 Plucker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창의적 인물 특성 범주 중 부정적 특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창의적인 인물의 직업군이 국가와 연령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된 창의적 인물을 해당 직업군으로 범주화한 결과 총 9개의 직업군(과학자, 예술가, 엔터테이너, 정치가, 기업가, 군인, 운동선수, 학자, 기타)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에 대한 암묵적 지식이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검증을 실시한 결과, 국가에 따라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 N=2,549)=642.48$, $p<.05$). 국가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직업군으로 한국은 예술가(23.8%), 중국은 정치가(39.4%), 일본은 예술가(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1위인 예술가(23.8%)와 2위인 과학자(22.4%) 간의 비율 차이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창의적이라고 언급된 인물의 직업군이 고른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에서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이 연령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대에서 최고 빈도를 나타내는 직업군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정치가, 일본은 예술가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반면, 한국은 각 세대별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대별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1, 2, 3 순위 중 1순위로 언급된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 중 최고빈도를 보인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세 국가에서 세대별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각각 정치가와 예술가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한국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과학자의 빈도가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Yue 외(2011)가 중국과 독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연구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가장 창의적 인물로 정치가를 응답했는데 그 이유를 정치가가 사회나 국가에 공헌적인 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중국인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독일인들에게는 예술가를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꼽은 이유가 미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세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창의적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에는 창의적 인물 그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이 속한 직업군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영향이 혼입(confounding)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 또한 중국인들은 공헌적인 특성을,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미적인 특성을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특성으로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있으나, 추후 이에 대한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순위로 지목된 창의적 인물들의 직업군에 대한 연령별 빈도의 순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든 세대에 걸쳐 1순위로 언급된 창의적 인물의 1, 2위 직업군 간의 빈도 차이가 근소하게 유지되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증가하여 5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급격히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젊은 세대일수록 1, 2순위 간의 빈도 차이가 커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즉, 세 국가별로 세대 간에 인식하는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 간에는 서로 다른 추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문화가 창의성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sikszentmihalyi, 1999)는 창의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중국, 일본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각각 정치가와 예술가가 가장 높은 창의적인 인물의 직업군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창의적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의 차이가 유사한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도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창의성 연구에 있어서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개방형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창의적인 사람을 지목해보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암묵적 지식을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여 보다 다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수집의 특성상 확률적 표집을 시행하기 어려워 모집단의 비율에 따른 성과 연령별 표집을 하지 못하였다. 향후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표집을 통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창의성의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물어보아 좀 더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앞으로 지속적인 비교문화 연구가 좀 더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문화나 사회만을 중심으로 도출된 연구결과가 아닌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창의성 및 창의적 인물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민희 (2010). 지혜 암묵이론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975-997.

대한상공회의소 (2013).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보고서: 100대 기업 인재상 '수퍼맨' <商議>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박춘성 (2011). 창의・인성교육 우수학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7**(1), 79-97.

성은현, 류형선, 하주현, 이정규, 한순미, 한윤영 (2007).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성에 대한 비교 연구. **영재교육연구, 17**(2), 365-391.

최인수 (1998).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한국심리학회: 일반, 17**(1), 25-47.

최인수 (2011). **창의성의 발견**. 서울: 쌤앤파커스.

최인수, 임미정, 표정민 (2011). 한국・중국・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 비교. **창의력교육연구. 11**(2), 27-47.

최인수, 윤지윤 (2013). 한국, 중국, 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대학생의 암묵적 지식 비교연구. **창의력교육연구, 13**(2), 159-183.

하주현, 성은현 (2009). 한국의 창의적 인물의 성격특성 및 인간관계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8**(3), 247-273.

Chan, D. W., & Chan, L. K. (1999).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Teacher's perception of student characteristics in Hong Kong.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2*(3), 185-195.

Choe, In-Soo (2006). Creativity-A Sudden Rising Star in Korea. In J. C. Kaufman & R. J. Sternberg (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Creatvity* (pp. 395-4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sikszentimihalyi, M. (1996). *Crae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Csikszentimihalyi, M. (1999).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pp. 313-33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fstede, G. H.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 in adult competence. In J. A. Meacham (Ed.), *Contributions to human development* (Vol.17, pp. 1-96). Basel: Karge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ISCO-08, ILO. (2012, April 17).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index.htm.

Kennedy, A. F., & Hauksson, K. M. (2012). *Global Search Engine Marketing: Fine-Tuning Your International Search Engine Results*. Indianapolis, IN: Que Publishing.

Lim, W., & Plucker, J. (2001). Creativity through a lens of social responsibility: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with Korean sample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5*, 115-130.

Lubart, T. I. (1999). Creativity across cultures.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pp. 339-35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ubart, T. I. (2010).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J. C. Kaufman & R. J.

Sternberg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pp. 265-27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ran, S. (2010). The Roles of Creativity in Society. In J. C. Kaufman & R. J. Sternberg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pp. 74-9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u, W., & Sternberg, R. J. (2002). Contemporary studies on the concept of creativity: The East and the West.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6*(4), 269-288.

Paletz, S. B., Peng, K., & Li, S. (2011). In the world or in the head: External and internal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3*(2), 83-98.

Rudowicz, E., & Hui, A. (1997). The creative personality: Hong Kong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1), 139-157.

Rudowicz, E. (2003). Creativity and culture: A two way interac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3). 273-290.

Seng, Q. K., Keung, H. K., & Cheung, S. K. (2008). Implicit theory of creativity: A comparison of student-teachers in Hong Kong and Singapore. *Compare, 38*, 71-86.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9*(3). 607-627.

Van de Vijver, F., & Leung, K. (1997). *Methods and Data Analysis for Cross-Cultural Research*. California: Sage.

Wonder, J., & Blake, J. (1992). Creativity East and West: Intuition vs. logic?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6*(3), 172-185.

Yue, X. D., & Rudowicz, E. (2002). Perception of the most creative Chinese by undergraduates in Beijing, Guangzhou, Hong Kong and Taipei.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6*, 88-104.

Yue, X. D. (2003). Meritorious evaluation bias: How chinese undergraduates perceive and evaluate chinese and foreign creator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7*, 151-177.

Yue, X. D., Bender, M., & Cheung, C. K. (2011). Who are the best-known national and foreign creators? A comparative study among undergraduates in China and German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45*, 23-37.

= Abstract =

Implicit Knowledge on the Creative Person in Korea, China and Japan - Based on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s

In-Soo Choe
Sungkyunkwan University

Gun-Hee Lee
Sungkyunkwan University

Jung-Min Pyo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licit knowledge of creative person in Korea, China and Japan. To this end, participants of all ages in three countries (Korean 328, Chinese 388, Japanese 394) were required to fill out the survey about creative person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Korean and Japanese recognized most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e person as "original" at all ages, Chinese recognized as "intellectual" in most ages. Second, occupations of creative persons were classified into nine categories. Third, in Korea scientist and artist, in China politician, in Japan artist were the occupations of the highest frequency at all ages. Thes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research of implicit knowledge on creativity in East Asia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licit knowledge about creative person differs in three countri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tudy of creativity.

Key Words: Creative persons' characteristics, Occupations, Implicit knowledge, Cross-cultural research

1차 원고접수: 2013년 7월 31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8월 20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8월 27일